



# 「SPACE(공간)」 599호, ‘종이와 콘크리트에 갇힌 건축운동’ 전시리뷰에 대해서

김현섭(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의 건축운동이란?

‘건축운동’을 온전히 ‘사회운동’으로만 치환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국립현대미술관의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전에 대한 안창모(경기대학교 교수)의 리뷰를 읽으며 갖게 된 의구심이다. 게다가 곧이어 접한 「한겨레」의 10월 13일자 전시회 기사가 ‘건축판에도 운동권이 있었나?’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니, 건축운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다소 불균형하게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87년 체제의 혁혁한 성취로 인해 건축계에서도 (그 내부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두드러졌다. 고로, 그 진지한 활동은 응당 조망받아야 한다. 당대 건축인들의 현실 참여는 현재의 우리를 지탱해주는 자존심이며, 더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건축운동을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 1920년대 러시아의 구성주의(구축주의)에 정치성만이 농후했던 게 아니라 심원한 미학적 담론도 내재했다는 사실을. 당시의 유럽을 고무하던, 새 시대의 새 건축을 향한 여타의 다각적 움직임과 실험에 대해서라면 더 말할 무엇하라. 굳이 서양의 것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거나 동경할 필요는 없으나(돌아보면 그들의 건축운동도 사후 구성된 측면이 크다), 그들의 선례는 우리의 현재에 유용한 참조점을 준다. 결론부터 말해보자. 건축운동은 사회운동으로만 온전히 치환해 이야기할 수 없다. 건축운동은 사회운동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삼지만, 그리고 건축 자체가 본디 사회적이지만, 건축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영역을 가진다. 그 영역이란 결국 건축의 공간과 형태, 구축법, 재료성, 생산방식 등에 관한 건축만의 지식체계와 기술, 즉 디서플린(discipline)으로 수렴되리라. 전시회 평자들은 바로 이 건축의 디서플린을 너무도 가볍게 건너뛰고 있다. 한국의 현대건축에 그러한 지식체계와 기술이 희박했다는 엄연한 현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말이다. 이는 그간 우리 건축계에 빈약했던 건축론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징후다. 당대 건축운동의 성과를 건축 교육제도의 변화로 같음하는 연구자들 대개의 입장 역시 그렇다. 교육제도의 변화가 가장 가시적임은 동의하는 바이나, 그래서 설계 스튜디오에서 가르치는 ‘건축’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건가? 바로 그 ‘건축론’에 대해서도 평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보였어야 하지 않을까? (이리 쓰고 보니 필자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라. 오히려 필자는 그간 누구보다도 건축의 ‘비판성’을 중요한 화두로 삼아왔다. 단적인 예로, ‘좋은 건축’을 주제로 했던 2015년 「건축평단」 창간호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필자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오히려 강조한 바 있다.) 요컨대 건축운동은 건축의 사회적 개입을



<종이와 콘크리트: 한국 현대건축 운동 1987-1997>전의 제3전시실(왼쪽)과 제4전시실(오른쪽) 전경

향한 움직임과 더불어 건축 자체의 디서플린에 새로운 논의를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건축이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띠는 까닭에 두 영역은 지속적으로 맞물리며 서로를 부양하게 된다. 건축운동에 대한 이 같은 이해가 전시 기획자들에게 부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전시회 개요 및 소도록의 몇몇 에세이를 보라), 전시회 자체가 평자들의 건축운동에 대한 불균형적 이해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시 전체를 인상 짓는 것이 사회 변혁을 나타내는 커다란 영상과 이미지이고, 청년건축인협의회를 위시한 여러 단체들의 ‘사회적’ 건축 활동 자료들이 전시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시가 건축의 내적 담론을 위한 활동을 아예 간과한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이 전시는, 1989년 도쿄에서 있었던 한국인 건축가 3인의 <마당의 사상>전, 4·3그룹 건축가들이 스스로의 건축 언어를 찾기 위해 행했던 일련의 활동, 한샘기행으로 대표되는 여러 집단의 건축기행, 분당 신도시 주택전람회 등을 통해 당대 한국 건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여러 움직임을 선보였다. 또한 한 전시실의 모서리 벽면에 표현된 이른바 ‘개념나무’는 건축의 개념어들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설령 당대 건축계의 지적 탐구가 큰 판에서 볼 때 열세였고 명쾌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전시 역시도 이를 제대로 부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환기 한국 건축가들의 내적 고투는 건축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시회 평자들이 지난 시대의 건축운동과 더불어 이번 전시회를 손쉽게 실패로 규정한 것도 그다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전시회가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울지 모르지만, 늘 그렇듯 관람자는 각자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 전시가 당대 건축운동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했어야 한다는 안창모의 주장은 매우 바람직한



Images courtesy of MMCA

것만큼이나 무리가 아닌가 싶다. 전시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는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모아 전시한 담당자들의 노고를 높이 사고 싶다. 지금까지 어떤 연구자가 이 중요한 시기의 자료를 이렇게 생생하게 내보인 적이 있었던가. 분석과 평가는 이제부터이고, 공은 연구자들과 학계로 넘어갔다. 필자도 내내 고민했던, 전시회의 우리말 제목 ‘건축운동’의 ‘운동’이 왜 영문 제목에는 빠졌는지를 안창모는 적확히 지적했다. 함께 논의해보자.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운동’의 단수성과 복수성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니콜라우스 펠스너 이래의 ‘The Modern Movement’를 찰스 젡크스는 ‘Modern Movements’로 확장했다), 과연 한국의 건축운동이 어느 지점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가능한지의 이슈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이 글에서 주목한 바, 사회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건축만의 고유 담론이 미약하나마 당대에 어떻게 전개됐고 이후의 건축을 위해 어떤 가능성을 시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사회를 향해 어떤 비판적 메시지를 던졌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대의 건축운동을 그리 쉽게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그럼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격변의 시대를 맞아 제각기 사회에 목소리를 제기했던 건축인들의 현존, 그리고 자기만의 건축 언어를 찾기 위해 벌인 건축가들의 고투를 생각건대, 이들이 겪은 좌절과 희열의 교차는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 ‘운동의 성과’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해석’이라는 고된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앤서니 비들러 말마따나 서양건축의 모더니즘이 역사가들에 의한 일종의 ‘발명’이라면, 우리는 지난 세기 우리 건축의 역사를 어떻게 발명할 수 있을까? 전시회가 판을 벌였고 몇몇 평자들이 나섰으니, 시간 들여 공리해볼 문제다. 전시회 큰 제목에 필자는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으나 그에 빛대 말하자면, ‘콘크리트’는 사라지지만 ‘종이’는 남는다.